단기적 강세현상 예상되나 장기적 안정세 계속 유지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CHERNOBYL 사태와 곡물시장

소련 우크라이나 Kiev 지방에 위치한 CHERNOBYL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소련을 비롯한 주변 동구 및 EC지역에 토양 및 대기오염 으로 인해 농업 및 축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말 이후 CBT곡물시세는 장기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즉 4월 19일 C&F톤당 114불 수준이던 옥수수 시세가 4월 30일에는 116불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마켓시세는 현물시세를 중심으로 C&F 200불대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상승세를 보이게 된 것은 CHERNOBYL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우크라이나지방이 소련곡물생산의 5%, 축산물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마켓에서는 소련의 긴급구매설이 계속 난무하였고, CBT상인들의 가격상승기대 속에 Commercial Buying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로 인해 소련이 미산옥수수 100만톤과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50~60만톤을 구매할 것이라는 루머로 인해 마켓이 일시적인 강세현상을 보인 바 있고, 또한 런던의 선임시장에서도 소련이 미산 옥수수와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이외에도 EC로부터 최고 200 만톤까지 곡물을 구매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걸프선임 및 EC선임도 한때 강세현상을 보인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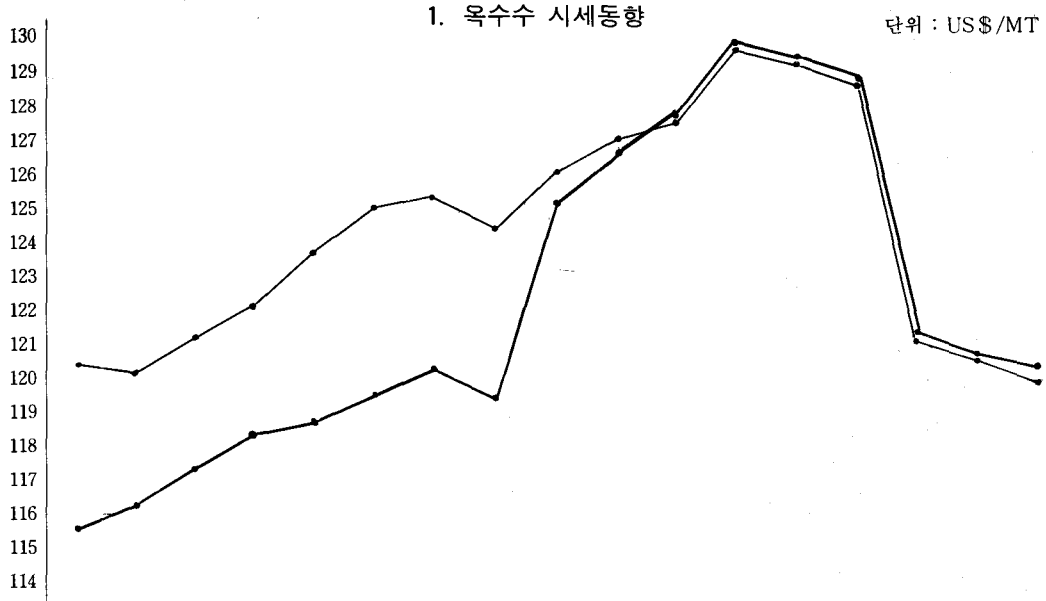
그러나 CHERNOBYL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로 인한 사고영향이 경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제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곡물재고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곡물시세와 선임시세는 다시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USDA 및 서방측 분석에 따르면 원자로 사고현장에서 사방 30km가 봉쇄되어 있으며, 이지역 곡물생산의 감소분은 전체 소련곡물생산의 약 1% 정도로 보고 있다.

옥수수시세 강세후 안정

CHERNOBYL 사태로 인해 한때 지속적인 강세현상을 보여오던 미국산 옥수수시세가 미국 콘벨트지역의 기후호조건과 US달러 시세의 강세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고 있다. 5월 18일 현재 미국 콘벨트지역의 옥수수 식부진전상황은 77%가 완료된 상태로 지난해 동기 평균치인 88%에 비하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과거 5개년평균치인 69%에 비하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캔사스, 켄터키, 죠지아, 노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지역은 거의 식부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있으며, 사우스타고타와 미네소타지역이 크게 뒤지고 있다.

한편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로 인해 가격상승기대속에 출하가 줄면서 평상시 옥수수의

1. 옥수수 시세동향



가격 \ 월일	6. 1	6. 2	6. 5	6. 6	6. 7	6. 8	6. 9	6. 12	6. 13	6. 14	6. 15	6. 16	6. 19	6. 20	6. 21	6. 22	6. 23
PNW	120.43	120.13	121.21	122.10	123.87	125.05	125.64	124.76	126.43	127.32	127.71	129.58	129.19	128.89	121.02	119.84	118.95
Gulf	115.73	116.23	117.31	118.19	118.79	119.57	120.16	119.28	125.28	126.95	127.74	129.61	127.22	128.92	121.05	119.87	119.38

일일 방콕 유입량(15,000~20,000)의 절반도 안되는 4천톤을 기록하면서 다소 강세현상을 보였으나 최근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시세 역시 소련의 50~60만톤 구매설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다시 안정추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향후 국제 옥수수시세는 CHERNOBYL 사태로 인해 소련의 구매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산 옥수수 재고가 누증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옥수수공급이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미산옥수수시세가 강세를 보인데 반해 남아공산옥수수의 경우 일본이 FOB 약 100불로 구매함으로서 비교적 미산 이외의 타국산 옥수수시세는 안정을 보여오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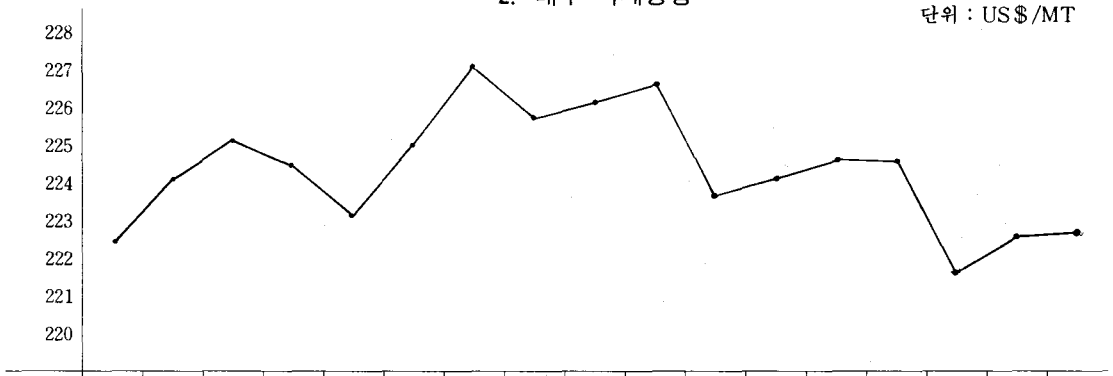
대두시세 지속적인 안정세

CHERNOBYL 사태로 인해 구곡대두시세가한때 14~18센트까지 급등했었으나 실제 옥수수와 소맥이 limit-up까지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대두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발표된 1986년도 미국 대두의 식부면적은 대략 60,842백만 에이커로 USDA가 3월에 추정했던 62,045백만 에이커에 비해 1.2백만 에이커가 하향조정 되었고, 이는 지난 해의 63,130백만 에이커에 비해 2.3백만 에이커가 감소한 면적이다. 이같은 대두식부 면적조사는 미국내 대두재배농가 8천 4백 23가구 를 무작위 샘플조사하여 조사된 것으로써, 이같은 식부감소는 주로 남서부 대두재배지역의 식부감소 때문이다.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MT



가격 월일	6. 1	6. 2	6. 5	6. 6	6. 7	6. 8	6. 9	6. 12	6. 13	6. 14	6. 15	6. 16	6. 19	6. 20	6. 21	6. 22	6. 23
가 격	222.76	224.05	225.15	224.60	223.22	225.06	227.08	225.80	226.35	226.71	223.77	224.14	224.78	224.69	221.85	222.58	222.76

이와 같은 식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두시세가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해의 풍작으로 인해 재고량이 충분한 상태에 있고, Soybean Belt의 식부작업호조와 US달러 시세의 강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Soybean Belt지역의 식부진전 상황은 86년 5월 18일 현재 26%가 완료되어 지난해의 평균치인 33%에 비하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과거 5개년 평균치인 21%에 비하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대두시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대두박 시세 역시 소련의 미산 대두박 구매수요 감소와 US달러 시세의 강세 등에 힘입어 약세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미산 대두 및 대두박 시세는 이상의 여러가지 약세요인 등으로 인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기타곡물시세 일부 강세

CHERONOBYL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후 소맥시세의 limit-up 등에 영향을 받아 사료용 소맥 시세도 일시 강세현상을 보였으나 최근 폭발사태로 인한 영향이 경미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마켓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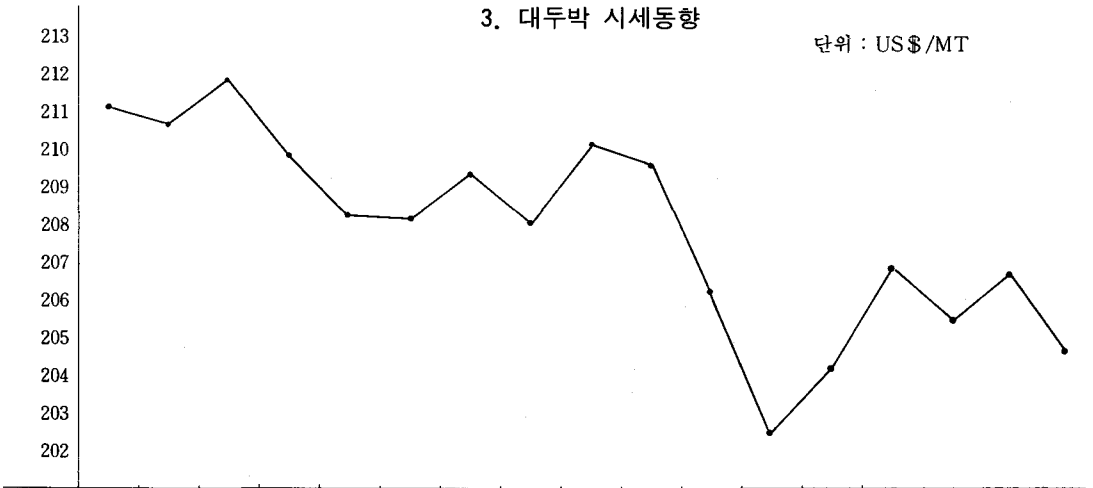
아직도 사료용 소맥재고의 다량 보유로 인해 카나다, 호주, EC의 판매경쟁이 치열하며, 앞으로 일본종합상사의 사료용 소맥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종합상사는 캐나다 소맥위원회(CWB), 호주 소맥위원회(AWB)의 대고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화강세로 인한 환차익 발생과 정보, 해운, 수송 등 all co-ordination을 통해 점차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수수시세는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해 구매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격도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수수식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5월 18일 현재 미국산 수수 식부진전상황은 아주 양호한 실정으로 44%가 완료되었고, 이는 85년 평균치인 39%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수시세는 미산수수식부의 순조로운 진행과 소맥 시세의 안정에 힘입어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소련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후 C&F 100불대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EC산 호밀 시세는 최근 카나다 위니펙마켓의 호밀시세 하락 등으로 인해 다시 약세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내 소비증가와 공급부족 등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산 콘쿠르텐 밀시세는 여전히 C&F 275~280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대두박 시세동향

단위 : US$/MT



월 일	6. 1	6. 2	6. 5	6. 6	6. 7	6. 8	6. 9	6. 12	6. 13	6. 14	6. 15	6. 16	6. 19	6. 20	6. 21	6. 22	6.23
C&F 가격	211.07	210.85	211.95	209.97	208.31	208.20	209.42	208.09	210.19	209.75	206.22	202.47	204.12	206.99	205.45	206.66	204.99

보다 싸게

이것이 **한얼농산 병아리**의 기본정신입니다

분양품종 : 하이부로 • 하바드

육성율 95%, 피크산란율 86%, 80% 이상 지속기간 10주
입란대 배부율 88%

놀라운 생산성이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사업본부 :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암산리 408 이천축산(전화 168)
판 매 점 : 천안 백마축산(전화 3 - 0964)
의정부 새한축산(전화 40 - 5492)